

## 갑오년(甲午年)희망의 새아침

## 양양의 동해바다로 솟구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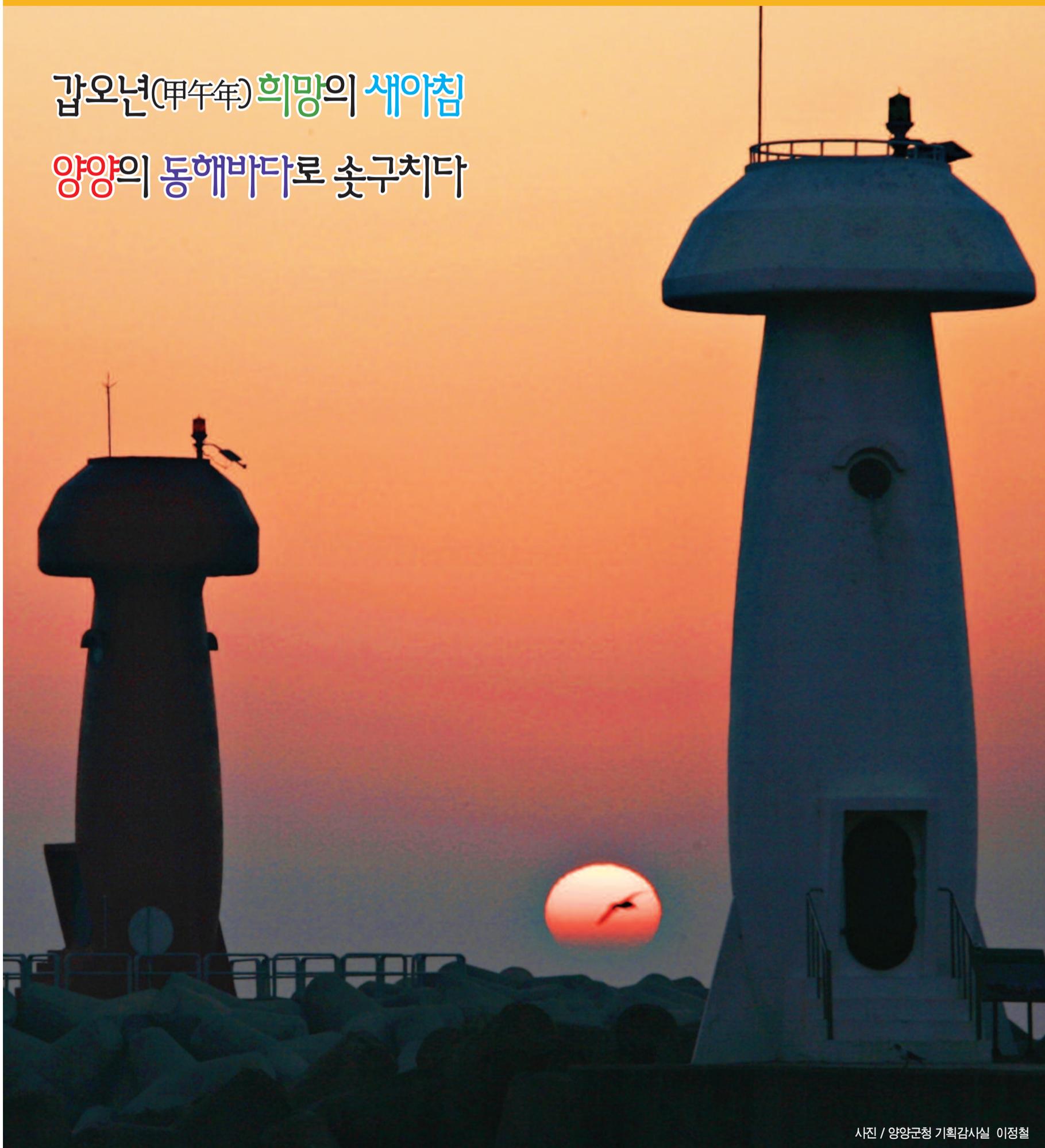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 갑오년(甲午年) 희망의 새아침 양양의 동해바다로 솟구치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 첫 태양이  
해돋이의 고장을 붉게 물들이며  
힘차게 솟구쳤다.

늘 한결같은 의기투합과 신의로  
뽄뽄 뭉친 군민들은 송이등대  
사이로 내민 새해를 반갑게 맞았다.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말처럼  
새해 우리군민들은 쉼 없이 내달리며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리라.

지 면 안 내

- 2면 양양국제공항 중국 3개 도시 취항 다변화 시동
- 5면 관동대 양양캠퍼스-강릉의료원 맞교환 '관심'
- 8면 겨울철 사랑의 연탄배달 잇따라
- 11면 사랑의 연탄 3만장 기탁 미담

- 3면 우리군의회 제195회 정례회 개최
- 6면 지경리 '해양휴양복합관광단지' 조성 본격화
- 9면 "각종 부정선거 제보 받아요"
- 12면 생활정보

- 4면 우리군 국제교류 '실리 찾자'
- 7면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한다"
- 10면 서림리 해담마을 국무총리 표창

## 양양국제공항 중국 하늘길 열다

## 양양국제공항 중국 3개 도시 취항 다변화 시동

저가항공 진에어 지난 4일 중국 장사·복주·닝보 취항

내년 22개 도시 정기운항에 제주노선 신설 획기적 관광활성화 기대



양양국제공항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의 중국 3개 도시 취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제선 다변화에 나서 강원도와 설악권 관광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와 우리군은 지난 4일 양양국제공항 2층 청사에서 도지사와 양양군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속초시장, 인제군수, 마원 진에어 대표, 김용 금학항공 총경리 등 각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장사, 복주, 닝보 등 3개 도시를 운항하는 취항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이날부터 내년 2월까지 중국 3개 도시에 189석의 보잉 737-800기종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176편의 전세기를 운항한다.

특히 진에어는 이번 중국 3개 도시 취항과 연계해 김포공항의 국내선 운항도

시작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도권 관광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에어의 김포노선은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어 국내선 활성화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강원도는 이번 진에어의 중국 3개 도시 겨울시즌 시범 전세기 운항을 시작으로 내년 4월1일부터 양양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중국 22개 도시의 정기운항을 2016년 3월31일까지 계획하고 있어 동북아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4월 중국 22개 도시 정기운항  
내년 4월1일부터 운항하는 중국 22개 도시는 △동북지역 대련, 하얼빈, 장춘, 치치하얼 △화북지역 천진, 석가장, 제남, 정주, 장사 △서북지역 태원, 은천, 서안, 후허하오터 △화남지역 복주, 하

문, 광주, 심천, 항주, 남창 △서남지역 성도, 중경, 귀양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은 현재대로 안정적인 운항을 유지하면서 중국 정부의 사정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된 연길노선은 내년 5월 취항을 목표로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재취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연길노선까지 성사되면 양양국제공항은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을 포함해 24개 국제선이 운항돼 공항 활성화를 바탕으로 강원도와 설악권의 관광경기 부양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또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활성화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양양공항 72시간 무사증 허용공항 지정'이 내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이와 연결하는 국내선 제주노선이 신설되면 양양국제공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의 거점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진에어의 중국 3개 도시 취항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들의 아웃바운드 위주의 경유공항에만 그쳤던 양양국제공항은 출발과 도착 등 모기지로서 주도적인 비행일정을 잡을 수 있게 돼 국내 공항 중 가장 활발한 국제선 중심공항의 역할이 가능해진다.

양양국제공항이 이처럼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문공항 선포 이후 강원도의

정책적인 지원과 우리군의 뒷받침으로 활성화 궤도에 오르면서 이와 연계한 각종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도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데다, LG패션의 양양휴양복합단지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아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운데 주요 숙박시설과 음식점, 전통시장 등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관광 중심공항 인지도 상승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이 중국인들의 국내관광 중심공항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지난 2009년 3천명에 머물렀던 외국인 이용객 수가 올해 5만7천명에서 내년에는 45만1천여명으로 크게 늘어나 대외적 인지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양양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최소 2박3일간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체류해 1인당 2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수산물 식자재 사용 등으로 획기적인 지역경기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자본 유치에 유리한 역할을 해내고 이를 통해 또 다른 항공수요 창출이 가능한데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등 그동안 부지했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 양양해변 차별화로 승부한다

지역특색 맞춤형 해변육성 추진...캠핑·해양레저·자전거장애인 전용 등 다양화

우리군이 올해 여름해변의 특수가 감소함에 따라 차별화 전략을 통해 해변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올 여름해변을 운영한 결과, 현북면 중광정리 해변 신설 등으로 인해 총 20개소에서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348만여명의 피서객을 유치했으나, 여름특수가 사라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해변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쾌적한 여건을 조성하고, 해변별로 테마를 선정해 차별화하는 한편, 낙산해변을 중심으로 해수욕, 삼림욕, 캠핑을 병행하는 복합해변 운영을 통해 사계절 안정적인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1억9천만원을 투입해 화장실 17개소, 샤워장 10개소, 식수대 9개소, 망루대 8개소를 정비했으며, 내년부터 18억4천만원을 연차적으로 들여 화장실과 샤워장, 식수대 등 22개 시설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낙산해변 5개 이벤트를 비롯해 지난해(122회)보다 크게 늘어난

383회의 이벤트를 열어 87만5천명의 피서객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둬에 따라, 앞으로는 연중 운영되는 군 단위 공연행사를 마을해변에서 개최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을단위 축제행사도 해변 운영기간에 열고 기업광고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연중 이벤트가 있는 해변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군은 향후 전국적인 인지도 상승으로 단골 피서객이 늘고 있는 동호해변의 별치후리기 행사처럼 20개 해변에 지역특색에 맞는 고유의 테마를 육성해 차별화하고 장애인 전용해변과 자전거 동호인 전용해변 등 특화된 해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동산해변을 동산항과 연계한 해양레저 거점해변으로, 국내 최고의 윈드서핑 자연조건을 갖춘 기사문 해변을 서핑해변으로 조성하는 등 차별화된 해변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 33개 체육시설로 5,342명 유치

우리군, 스포츠마케팅 경기부양 효과

올해 우리군이 33개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전국대회를 포함해 14개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지난해보다 늘어난 5,342명의 선수단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둬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송이축제 기간 중 열린 송이배 배드민턴대회와 축구대회에는 가장 많은 2,000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된 KBS배 전국사이클대회도 선수단만 511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특히 사이클 경기장은 대회 준비를 위해 20여일 전부터 선수단이 체류하며 훈련을 실시해 시너지 효과가 큰데다, 대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에는 전지훈련장으로 사용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스포츠마케팅 효과시설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기장 주변에 자전거 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54억1,800만원을 투입해 자전거도로 6개소와 앞으로 70억원을 들여 사이클경기장~자전거공원~동해안~산악MTB코스로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루트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동해안 최고 시설인 수산항 요트마리나는 매년 전국단위 요트대회를 개최해 400여명의 선수단이 3~4일간 머물며 요트학교도 개설돼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등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군은 사이클경기장과 요트마리나, 사격장, 야구장을 비롯해 33개소 9만 5,146㎡의 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3억원을 투입해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 스포츠마케팅의 체계적인 기반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670-2731

# 의 정 소 식

## 우리군의회 제195회 정례회 개최

### 행정사무감사 강도 높게 실시...총 23건 심의 의결

우리군의회(의장 김일수)는 김일수 의장 주재로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 제195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최홍규 위원장을 필두로 행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최홍규 위원장은 체육관 인근 주차장이 협소해 대단위 행사 개최 시 제방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통행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종합운동장 공사로 확보된 토사를 이용하여 남대전 둔치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 줄 것과 마을별 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올해 이장 한마음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만큼, 내년부터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반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건의했다.

김택철 부의장은 종합버스터미널 신축사업에 대하여 우리군 버스터미널이 타 지역에 비해 노후되고 협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맞물려 있는 만큼 국토 교통부와 적극적 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 신축이 가능하도

록 노력해 줄 것과 미래전략과를 폐지하고 오색삭도추진단을 신설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미래전략과 폐지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오색삭도 추진을 위한 한시적 인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며 오색삭도 문제는 우리군과 강원도가 합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한시적 팀 구성에 대하여 강원도에 지속적인 건 의를 당부했다.

김현수 의원은 오색삭도와 관련하여 오색삭도 부결에 대해서는 오색케이블 카 유치지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 원뿐만 아니라 양양군민 모두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1차 부결이후 행정에서 너무 조급하게 도전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환경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양양군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3차 도전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 도록 기존의 문제점을 적극 보완할 필요 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오세만 의원은 양양읍과 현남면, 강현 면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만 현북면과 서면, 손양면은 양양군관리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양 양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도 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서

는 방사능 검사의무화를 위해 관련조례 를 개정한바 있는데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우섭 의원은 워터비스 해양심층수 기반조성 사업에 많은 군비가 소요된 것 에 반하여 현재 경영난으로 좌초 위기에 있고 워터비스 고용인들도 직장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양 양군의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회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양양골프리조트 사업에 대하여 당초 산 불피해로 인하여 민관과 기업이 적극 협 력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일부 변질 된 부분도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며 지금에 와서 조기착공보다는 주민과 기업, 행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숙 의원은 군부대 측과 아파트 등 거주지 대책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 지 질문하고 군부대 측 여론에 의하면 우리 양양군이 타지역에 비해 군장병들 거주문제 등에 관심이 적은 편이라는 지 적이 있는데 인구문제와도 직결되어 있 는 만큼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포 월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폐수배출 분담 금을 1/3로 부담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일부 보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입주 업체들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 “6대 의회 잘 마무리되도록 헌신”

존경하는 3만 군민 여러분!



새해에는 향후 4년 간 군 정을 이끌고, 민의를 대변 해 나갈 대표자를 선출하 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 기에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군민 모두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 대해 봅니다.

지난해는 군민 모두가 그토록 염원해오던 오색삭도 시범사업이 또 다시 부결되었기에 그 어느 때 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한 해가 아 니었나 싶습니다. 깊은 시름과 실망감 속에 서도 이를 슬기롭게 이겨 내오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청마(靑馬)의 기운 으로 역동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6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 여, 보다 성숙한 7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발 전 기를 다져 나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 은 임기지만 군민의 단합된 의지를 모으고, 축적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 정 운영의 최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6대 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 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1월 1일

양양군의회 의장 김 일 수

## 주차장 확대 주차난 해소

### 남대전 둔치 활용...전통시장오색 몸살

우리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차장 부족현상을 해소 하기 위해 주차장 확대에 나서 기로 했다.

현재 관내에는 노상주차장 598면과 노외주차장 4,080면 , 부설 주차장 5,521면을 포함 해 총 9,601대가 주차할 수 있 는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 매년 늘어나는 차량대수를 감 당하지 못하는데다,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 주변에는 많 은 차량들로 갈수록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내권의 주차면 을 늘리기 위해 주차부지 매입 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남대전 둔치 등에도 주차장 확대 조성 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단기대책으로 지 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투입해 보조기 층을 부설하고 부지정지 등 남 대전 둔치의 주차장 활용방안 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양장날 이나 각종 축제행사 등에 활용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향후 양양읍 구교리 일대에 350여대 규모의 주차면적을 확 보하고, 양양읍 송암리로 계획 되고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이 완공되면 주변공간을 이용해 주차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 이다.

또 매년 단풍철 불법주정차 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색지역 은 오색삭도 하부 주차장 부지

와 관터 등 주차 가능지역을 최 대한 활용해 나가고, 장기적으 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과 연계해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해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 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월 기준 우리군 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 2,371대로 주민 1인당 0.45대 를 보유하고 있으나, 차량은 매 년 15%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다, 시내권의 불법주정차를 근 절하기 위해 설치한 CCTV 등 을 통해 423건을 단속, 1,6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 내권의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추세다.

▶문의 민원봉사과 교통행정담당 670-2170

## 고완주 부군수 취임

### 두 번째 부군수 맡아...“지역발전 헌신”



문으로 알고 헌신적인 자세로 지역과 강원도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겠다” 고 소감을 피력 했다.

양양 현남 출신으로 지난 75년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고 부군수는 지난 1993년 법무계장을 시작으로 예산, 기획, 행정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뒤 1999년 사무관으로 승진, 현남면장, 관관문화과 장, 지역개발과장, 자치행정 과장 등을 역임한 뒤 2008년 서기관으로 승진, 기획감사실 장을 지냈다. 이어 2010년 강 원도 소속의료원 협력관으로 근무하다, 2011년 1월 양양부 군수로 발령받아 만 2년간 양 양부군수로 재직하던 뒤 환동해 본부 기획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이번 발령으로 고 부군수는 두 번째로 양양 부군수를 맡는 진기록을 남기 게 됐다.

지역출신의 고완주 환동해 본부 기획총괄과장(59)이 30 일자로 양양부군수에 취임했 다.

고 부군수는 지난 3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 에 들어갔다.

고 부군수는 “그동안 부족 한 저에게 다시 한번 고향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뒷 받침해준 지역주민들에게 감 사드린다” 며 “양양군의 발 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는 주

## 우리군 국제교류 '실리 찾자'

중국·캐나다 경제분야 초점...일본 민간교류 확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컨설팅 최종보고회

우리군이 진행하고 있는 국제교류가 단순한 친선교류를 넘어 분야별로 지역강점을 극대화한 실리교류로 확대돼야 한다는 교류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군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박천수 부군수와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양양군 국제교류 컨설팅'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전문위원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양양군은 군 단위치고는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모멘텀

이 확보되지 못한데다, 문화·경제·축제에 이어 지역강점인 관광자원과 농업기술 등으로 교류영역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숙 충남도 국제통상과 전문위원은 중국 양주군과의 교류와 관련, 최근 중국과의 국제교류는 공무원 등 지방정부 주도에서 시장(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며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실용적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양 도시간 맞춤형 교류를 추진하고 전담기구를 통한 체계화 및 제도화, 분야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전제한 뒤 기존 교류사업의 지속추진을 바탕으로 격년제 교류회 개최, 청소년 교류 추진, 공연단, 서예, 관광 팸투어 등 민간중심의 일반교류를 확대하고 민간경제협회를 활용한 기업간 경제무역교류 및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이익도모 및 지방정부의 외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만표 충남도 국제통상과 국제전문팀은 일본 도시와 교류 활성화 제안에서 한·일관계의 지속적인 냉각성을 고려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향후 공무원의 상호교류와 벤치마킹 등 내부적 정책결정 선행을 전제로 민간차원의 교류확대와 매뉴얼화, 선진 우수사례에 대한 학습과 공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업무를 중심으로 소속 부서간 차이점을 비교한 후 우수성을 교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국제적인 마인드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진표 강원도 글로벌사업단 국제협력팀장은 캐나다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 양양군은 지난 2010년 캐나다 앨버타 국제지역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으나, 앨버타 국제지역은 8개 자치단체가 공동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경제분야가 중심이 되고 있는 르덕시와 구체적인 사업추진 의사를 타진, 특정화해야 영어권과의 국제교류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내년이면 강원도와 앨버타주가 교류 40주년을 맞는 만큼 이를 계기로 르덕시와 경제교류 파트너로 공동사업 추진을 검토하면 보다 손쉬운 국제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이며 무엇보다 국제교류 전담부서의 창구역할 및 외부채널 전문화 등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전 팀장은 특히 캐나다 앨버타 국제지역 중 르덕시와 교류를 맺게 되면 향토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역특산물 판매,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등에 유리할 수 있다며 우선 지역을 알리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에 따라 국제화민간추진협의회 구성을 비롯해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발맞춘 경제교류 등에 주안점을 두고 국제교류의 실리 찾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천수 부군수는 "이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교류 기반을 갖춰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분보다는 실리위주의 교류 매뉴얼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감사실 평가통계담당 670-2105



## 야생동물 피해규모 감소

올해 136건 7천여만원...순환수렵장 긍정적 영향

올해 우리군의 야생동물 피해규모가 최근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일부 순환수렵장 운영이 피해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4만3.13km<sup>2</sup>(전체 면적의 38.6%)를 수렵구역으로 지정 운영한 결과 모두 2,724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했으며, 수렵장 개장에 따라 7,96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얻었다고 밝혔다.

포획 동물은 수평 1,922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멧돼지 193마리, 고라니 162마리, 멧비둘기와 오리류 276마리 등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규모는 총 136건에 14만9,307m<sup>2</sup>의 면적에서 7,406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건에 18만7,315m<sup>2</sup>의 면적에서 1억2,169만원이었던 지난해의 야생동물 피해규모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군은 이와 관련, 개체수 증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수렵단체에 대해 보험료 지원(총비용의 60%)과 포획수종별 보상금 지급을 통해 농가의 구제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수렵장을 운영한 올해의 경우에는 피해 신고건수와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수확기를 중심으로 관내 엽

사 23명으로 구성된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65마리, 고라니 242마리 등 307마리를 포획했으며, 이는 2011년 584마리(멧돼지 233, 고라니 351)와 2012년 464마리(멧돼지 155, 고라니 309)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군은 올해 4,650만원을 투입해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태양전지식 야생동물 퇴치기를 48개소에 신규 설치한 가운데 피해면적 100m<sup>2</sup>이상, 피해 보상금액 3만원 이상의 농작물경작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른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리군의 야생동물 피해규모가 줄어든 것은 그동안의 피해예방 지원시설 강화와 함께 순환수렵장 설치에 따른 일부 구제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670-2180



## 손양 수산리 바다목장화사업 강화

2016년까지 50억 투입 지속 추진

우리군이 갈수록 고갈되는 연안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손양면 수산리 해역의 바다목장화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연안바다목장 사업 대상으로 손양면 수산리를 선정해 오는 201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연안바다에 인공어초 등 수산생물의 서식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억원을 투입해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연안 바다목장화사업은 수산어촌계마을어장(48헥타) 일원에 2012년 10억원을 들여 인공어초 3종 99기 및 방파시설 19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으로 인공어초 5종 115기, 강도다리 20만 1,343마리를 방류했다.

이어 내년부터 2016년까지 연안에 파도가 거센 동해안의 특성을 감안한 해중립초 기능을 겸비한 인공어초 투하 및 방파시설 설

치, 종묘방류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레저관광선 및 낚시터를 조성해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안 바다목장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산항은 인근에 솔비치호텔, 골든비치 골프장, 선사유적 박물관 등의 문화관광 시설 등이 위치해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을 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소비의 기능과 관광.레저를 융복합한 새로운 트렌드의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어족자원 관리체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산리 연안의 수산생물 서식지 조성과 체계적인 자원회복 및 관광어업의 진흥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과 어업진흥담당 670-2742

## 관동대 양양캠퍼스-강릉의료원 맞교환 '관심'

강원도, 지난 16일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공청회서 제시



최근 강원도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강릉의료원과 폐교된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맞교환을 기능전환의 방안으로 꼽고 있어 향후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마찬가지로 지난 11월말까지 138억원의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강릉의료원을 관동대에 매각할 경우, 적자누적에 따른 도민혈세 지원이라는 큰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캠퍼스는 그동안 지역현안 중 가장 큰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공개매각을 실시했지만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폐교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기능전환이 최근 강원도의 강릉의료원과 맞교환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새로운 방향성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관동대 양양캠퍼스가 강원도 자산으로 편입될 경우,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던 양양

###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새 국면...의료원 만성적자 해결책 접점

한국산업보건진흥원은 지난 16일 강원도로부터 의뢰받은 '의료원발전방안 연구용역' 공청회를 열고 강릉의료원을 대학에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원도는 그동안 의과대 부속병원이 없어 의대생들이 실습교육에 차질을 겪어온 관동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강릉의료원을 매입하는 대신 폐교된 양양캠퍼스를 명지학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우리군의 골칫거리로 꼽혔던 관동대 양양캠퍼스를 명지학원이 강원도에 매각하게 되면 기능전환의 분기점을 마련할 수 있고, 강원도

풀이된다.

유명한 강원도 의료원경영개선탐담단은 "강릉의료원과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맞교환은 현재도가 진행되고 있는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며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내년 2월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추진여부가 확실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군도 강원도의 이 같은 강릉의료원과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맞교환 방안이 뜻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제기되자,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2008년 폐교 후 기능전환에 따른 이렇다 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관동대 양양

국제공항 관련 항공대학 설립을 비롯해 중국 자본유치 활성화 계획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우리군과 강원도는 관동대 양양캠퍼스가 장기간 폐교 상태로 방치되면서 실질적인 기능전환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해부터 중국자본 유치를 통한 정상화에 공을 들이는 등 자구책 모색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강원도의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내년 2월 예정된 가운데 강릉의료원과 관동대 양양캠퍼스의 맞교환 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문의 안전행정과 자치지원담당 670-2221

## 현남 달래촌 공동체 복원 우수사례

올해 1억6천여만원 소득...맞춤형 테마 상품화 각광



현남면 달래촌(촌장 김주성)이 맞춤형 테마 운영으로 올해 1만 3,850명의 관광객을 유치, 1억6천여만원의 주민소득을 올리며 농산촌의 새로운 롤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군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동골 권역단위 종합중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남면 달래촌이 특화된 자원개발과 운영을 통해 짧은 기간 고소득마을로 성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공동체 복원의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달래촌은 지난 2010년 주민들 스스로가 3,760만원을 출자해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한 뒤 마을이 보유한 자원인 숲에 치유라는 테마를 접목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농촌모델로 출발했다.

특히 마을전체의 95%에 달하는 산림을 활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숲과 치유라는 테마를 결합해 11개 코스 총연장 32km의 산림 트레킹 코스를 개발한데 이어 지난 2011년에는 산림에 자생하는 친환경 산채와 청정나물을 활용한 약산채 밥상 등 자연 식재료만을 이용한 10여종의 치유음식을 개발해 판매하면서 먹거리 X파일에 착한식당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올해 몸과 마음 치유센터를 개설하면서 내부에 달래촌 한의원(원장 신천호)을 함께 개설해 한의원 진료서비스와 편백나무 찜질방 등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는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래촌 농가 및 몸·마음 치유센터에는 지난 10월말 현재 1만3,850명이 방문해 1억6,485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1일 최대 60명으로 이용객을 제한 운영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으로 4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데 이어 권역사업 이후에 추진된 새농어촌건설운동,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농어촌공동체, 녹색농촌 등 4개 사업을 권역사업과 연계해 예산을 절감하면서 각종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달래길 트레킹~약산채 음식체험~한방체험~백선토 찜질체험~수동고을 해양체험관(숙박)을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해 경쟁력을 더하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 670-2336

## 양양한우 셀프식당 '인기만점'

고기 질 좋고 가격 저렴 소비자들 만족도 높아

양양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양양군이 시행하고 있는 '양양한우 셀프식당'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고 가격도 저렴해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양양한우 소비촉진과 대중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200m내에 동계동락, 송화정, 영심이네, 바우갈비, 마포숯불갈비 등 5개의 양양한우 셀프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속초양양축협이나 정육점 등에서 직접 한우고기를 사 식당에 가져가면 1인당 상차림 비용 6천원으로 질 좋은 양양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맘껏 즐길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질 좋은 양양한우를 직접 골라 먹을 수 있어 고기품질에 대한 불만이 없는데다, 기존 식당에서 파는 고기가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 경제적인 부담도 덜하다는 반응이다.

실례로 지난 16일 양양한우 셀프식당을 이용한 지역주민들은 "일행 6명이 속초양양축협에서 특수부위 2kg을 16만원에 사 상차림 비용만 지불하고 밥과 술 등을 포함해 25만원에 푸짐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양양관내 대부분의 식당들이 한우 특수부위 100g에 1만8,000원에 팔고 있어 2kg을 먹을 경우, 고기 값만 36만원이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양양한우 셀프식당



은 절반 가격으로 질 좋은 양양한우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처럼 양양한우 셀프식당이 인기를 끌자, 최근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등 소비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양양송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축산위생담당 670-2705

##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전개

우리군 내년 1월말까지 순회 모금

우리군이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다.

내년 1월말까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은 5,4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와 6개 읍·면 등 총 7개소에 성금모금 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성금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후 각 지역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생계비나 의료비, 화재위로금 등으로 배분 지원된다.

군은 희망나눔캠페인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오는

19일 양양장날에 전통시장 입구에서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관으로 가두모금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에서는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협의회가 시내일원에서 순회모금활동을 펼친다.

한편 지난해 전개한 희망나눔 캠페인에서 우리군은 총 5천715만원을 모금 기탁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1억3천4백만원이 배분돼 관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및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됐다.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670-2264



#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한다”

## 우리군생태관광협회 창립 본격 활동



친환경 생태관광을 우리군의 미래 산업화로 이끌어 나갈 중심체인 양양군생태관광협회(이하 생태관광협회)가 지난 14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생태관광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양양읍 율리 굿모닝여행사 사무실에서 초대 장석삼 회장을 비롯해 오세만·김택철 부회장, 김일수 고문, 이기용 학술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겸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생태관광협회는 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운영에 따라 생태적 보전가치가 뛰어난 우리군의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마련해 새로운 프레임의 관광산업 도약기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지정 매뉴얼에 발맞춰 우리군의 뛰어난 생태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해 상품화를 통한 관광

경기 부양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운영가이드라인 마련, 핵심모델 선정 등 생태관광지역 지정의 필수요건을 갖춰 환경부로부터 양양군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태관광협회는 오색과 점봉산, 오색령, 구룡령, 낙산, 하조대, 물치, 남해, 남대천, 설악산 일원 등 전국에서도 내로라하는 생태보전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세계적인 트래킹코스 개발 등 특화된 관광 경쟁력을 접목한 생태관광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리군생태관광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생태관광을 브랜드로 키우는 전략화를 통해 침체된 관광경기를 되살리고 향후 10년 후를 주도할 수 있는 생태관광 산업화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방파제에 벽화 그리면 어떨까?”

## 내향 방파제 벽화그리기 제안 관심 우리군 “사업타당성 검토 후 시범항구 추진 구상”

최근 골목 담장의 벽화그리기가 도심미관 개선에 큰 효과를 보면서 설악권의 주요 방파제에도 벽화를 그려 넣자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주민은 군청 홈페이지에 “7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 많은 항포구가 있는데 내향으로 보이는 방파제 벽면이 그냥 건설 당시 시멘트 구조물로 돼 있어 무의미해 보인다”며 “담장 벽화처럼 내향의 방파제 벽면을 그림으로 채우면 관광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 주민의 제안처럼 현재 7번 국도를 따라 관내 해변에는 규모 있는 항포구가 자리하고 있어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7번 국도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멀리 방파제가 눈에 들어와 잠시 주차하고 경관을 감상하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어 내향의 방파제 벽면을 활용한 벽화그리기가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지역별로 항포구의 특색을 살린 이정표가 색다르게 조성되고 있는데다, 물치항의 경우에는 항포구 관광지원회의 일환으로 송이모양의 등대를 갖춰 놓고 있어 방파제의 벽화그리기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 “이번 제안은 참으로 역발상의 전환일 정도로 참신하고 기발하다”며 “우리 지역의 항포구에 지역 특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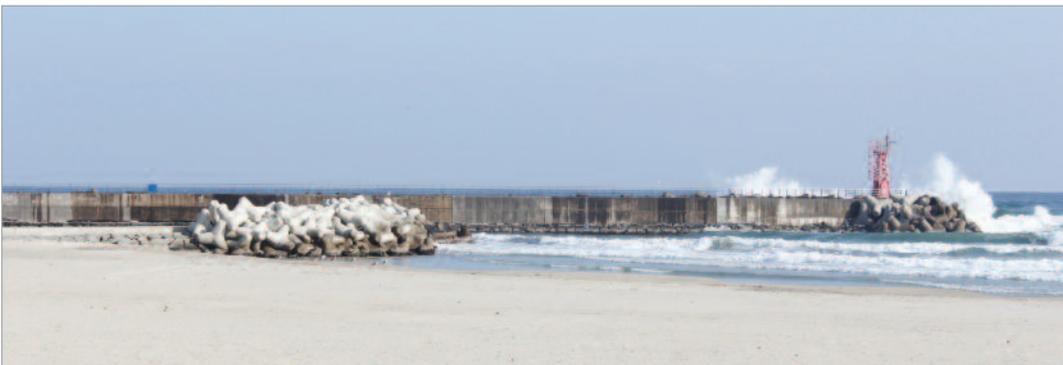
나 자랑거리 등을 그려 넣는다면 연중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높게 평가했다.

내향 방파제 벽면 벽화그리기를 제안한 주민은 “적은 예산으로 지속성 있는 홍보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제안하게 됐다”며 “행정에서 검토한 뒤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방파제 벽면에 강화타일을 부착해 관광자원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심의단계에서 탈락했다”며 “하지만 최근 방파제가 어항기능에 더해 관광기능까지 하고 있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방향성을 잡아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은 이와 관련, 사업 타당성과 예산 등을 종합해 설악해변에 위치한 후진항을 시범사례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 경광등 달고 경운기 안전운행 ‘호응’

## 올해 285대에 안전장비 부착 지원



“경광등 부착하고 안전운행 하세요.”

우리군이 농업인들에게 지급해오고 있는 차양구와 경광등이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좋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농업인들의 경운기 안전운행을 위해 햇빛 차단과 비가림용 차양구 및 경광등을 지급해오고 있는 가운데 첫 해 39대에 이어 올해도 285대에 부착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전담수리 인력이 직접 마을을 돌며 부착작업을 실시하면서 농업인들의 부담이 줄어든 데다,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좋아 호응도가 높다.

군은 올해 경운기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작업 의존도가 높은 경운기에 경광등 200대를 설치, 사고예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추가 예산을 세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서비스를 지원받은 주

민 김상영(양양읍 기정리) 씨는 “행정에서 경운기의 차양구와 경광등을 설치해줘 눈이나 비가 올 때 편리하고 특히 야간운행 할 때 안전하다”고 고마워했다.

관내에는 약 2,000여대의 경운기가 운행 중이며, 군은 봄철 110여개 마을에 대한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통해 800여대의 경운기에 기름통과 라지에타 등 10만원 이하의 부품에 대해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116개 마을에 대해 114회 수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100여대의 경운기에 차양구 및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운행과 작업편의를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 670-2701

# 제5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 지평 넓혀

## 최낙민 미협 양양지부장 마지막 교류전 가져



한국미술협회 양양지부(지부장 최낙민)가 마련한 제5회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양양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됐다.

미술협회 양양지부가 한·중·일 3국의 아동미술 교류를 위해 연 이번 국제아동미술교류전에는 중국과 일본 아동들의 작품 등 120여명이 전시돼 아동들의 그림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최낙민 지부장이 척박한 미술분야 개척을 위해 맡은 지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국제아동미술교류전도 마지막으로 열려 아쉬움을 더했다.

최 지부장은 설악권 곳곳을 다

니며 미술과 사진작가로 활동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향토미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미협 양양지부를 창립한 뒤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비롯해 개인전 등 많은 미술활동을 통해 향토미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매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곱색깔 무지개 교실을 열어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줬으며, 담장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해 어둡던 지역사회를 한층 밝게 하는데 기여했다.

최낙민 지부장은 “앞으로도 미술과 사진을 통해 향토예술의 지평을 넓히는데 역량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인재육성 100년을 설계한다

■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12월 장학금 기탁현황

번호	기탁일	성명	기탁금(원)
1	10.22	양양군시장연합회 회장 박필용	1,000,000
2	10.24	고장환 남애리 웰빙모텔사장	1,000,000
3	11.04	(유)늘푸른환경 대표 이성진	1,000,000
4	11.18	현북우체국 국장 감지수	1,000,000
5	12.1	양양군청재직속고동문화회	1,000,000
6	12.6	대한불교조계종 휴휴암 현남면 광진2길 3-16	5,000,000
7	12.6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강현면 낙산사로 100	5,000,000
8	12.11	대한적십자봉사단 회장 박명자	1,000,000
9	12.16	손안면 이장협의회 협의회장 이근충	1,000,000
10	12.18	강릉최가두부(포월농공단지) 대표 최종성	2,000,000
11	12.18	양양축산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 유정학	2,000,000
12	12.19	하조회(현북기관단체모임) 면장 김남현	1,000,000
13	12.23	양양군표고연구모임회 대표 조오행	1,000,000
14	12.24	한국자유총연맹양양군지회 대표 정준화	2,000,000
15	12.26	강원도민일보기자 송원호	500,000
16	12.26	강릉제일고양양군청농협재직동문회정의순(농협군지부부부장)	1,000,000
17	12.27	양양대청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대수	1,000,000
18	12.30	양양군부군수 박천수	1,000,000
19	12.30	낙산사 관음회 회장 김옥남	1,000,000
20	12.26	산림농지과 정부합동평가최우수기관성정	1,000,000
21	2013.7~12월	'13년 1구좌갯기운동 정상철외 31명	3,240,000

우리군 인재육성장학회 기탁 잇따라

강릉제일고 동문회 · 자총 · 표고연구회 · 하조회 · 축산양돈법인 등

우리군의 인재육성장학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각 단체로부터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군청 및 농협 재직 강릉제일고동문회(회장 정의순)는 지난 26일 군청을 찾아 양양군수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앞서 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회장 정준화)와 포순이 봉사단원들은 지난 24일 양양군수를 방문해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으며, 양양군표고버섯연구모임회(회장 조오행)도 23일 인재육성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또 현북면 기관단체장 모임인 하조회와 양양대청한우영농조합법인은 우리군을 방문해 양양군수에게 인재육성장학기금 100만원씩을 기탁했다.

▶문의 안전행정과 대외협력담당 670-2451



겨울철 사랑의 연탄배달 잇따라

양양로타리클럽 · 교육청 공무원노조 · 농협양양군지부 등

겨울철을 맞아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관내 각 단체에서 잇따른 사랑의 연탄 배달을 통해 온기를 전하고 있다.

양양로타리클럽(회장 정준화)은 지난 8일 강현면 전진리에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민경익, 김윤순 씨댁을 방문해 각 1천장씩 2천장의 연탄을 정성스럽게 배달하고 릴레이 자원봉사를 펼쳤다.

앞서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지부 속초양양지회(지회장 최춘득)는 지난 7일 회원 30명과 함께 양양연탄은행에 1,500장을 기증하고 소외계층 및 기초수급자 등 5가구를 대상에 사

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NH농협 양양군지부(지부장 손재형)도 지난 6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디모데오 요양원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사랑의 쌀 20kg 10포를 전달한데 이어 독거노인 2가구를 찾아 연탄 1,000장 등 1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또 농촌지도자 강현면회(회장 김동명)는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경부터 설악 해변에서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1천장을 배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도왔다.의 연탄을 나르고 있다.



춘천정보통신학교 학생들 격려

소년보호위원회 양양협의회 점심 제공



춘천지방법원 소년보호위원회 양양협의회(회장 박은식)가 지난 12일 춘천정보통신학교를 방문해 한 때의 실수로 강생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양양협의회 회원들은 이날 돼지 2마리와 과일 등으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전교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들이 하루 빨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학교와 사회로 복귀하기를 기원했다.

# “각종 부정선거 제보 받아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제보함 설치 선거법 강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연경)가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입구에 제보함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사무실 1층 입구에 제보함을 부착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지난 6일부터 공직선거법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을 안내하고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게시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및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 및 녹화테이프 등을 게시할 없다.

이에 따라 양양군선거관위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비행 및 흑색 선전,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기부행위 및 공무원의 선거관련 행위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671-1390

## 제10회 노인대학 졸업식



우리군노인회(회장 이진형) 부설 노인대학 졸업식이 지난 12일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졸업식에서는 43명이 소

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다. 이재풍 노인대학장이 졸업생 대표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양양우체국 집배 365봉사단

어려운 이웃들 나눔 실천 앞장



양양우체국(국장 임근순) 집배 365봉사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며 나눔.사랑 문화를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양양우체국

집배 365봉사단은 지난 10일 양양 남문리에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말벗을 해드리는 등 겨울철 이웃사랑을 전했다.

##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 마-43. 青春歌

해당화, 봄 나비야  
꽃이 진다 서러 마라

그 꽃 지면 아주 지나  
明春 三月 다시 핀다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움이 나나 싹이 트나

다시 못 올 요 내인생  
아니 놀지 못할 소냐.

우리고장 郡花는 해당화입니다. 열매도 참 좋습니다.

먹기도 했습니다. 그 맛 시금털털 하지요. 때로는 실에 꿰어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아련한 기억! 아니 추억으로 되찾고 싶습니다. 낭만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냇가에로 들고나던 그 시절 그 장면 점점 멀어지는 지금일지라도 참 좋은 우리고장「양양땅, 양양 사람들」부디 영원하기를 비는 마음 함께 한다면 바로 그것이 愛郷의 꽃이요 열매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 여성회관 교육교실 230명 수료

23개 강좌 운영 · 작품발표회도 열어



우리군은 지난 5일 오전 11시 여성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양양군수, 김일수 의장 및 교육생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여성회관 교육교실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올해 운영한 23개 강좌에 230명이 수료하고 작품발표회를 열었다.

## 양양양수발전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공병양 한국수력원자력 양양양수발전소장은 지난 4일 오전 11시 군청을 최근 본사로부터 수여받은 청렴우수 포상금

과 직원 모금액 등 2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 재청 속초고동문화장학금 기탁

우리군청 재직 속초고동문화(회장 최명섭)는 지난 3일 오전 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최명섭 회장은 “백년대계인 인

재육성사업이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동문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 서림리 해담마을 국무총리 표창

### 다양한 체험테마 자리매김...고 김영철 이장 헌신



서면 서림리 해담마을(대표 이상욱)이 지난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ICC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제3회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에서 국무총리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해담마을은 관내에서 가장 많은 마을사업을 펼쳐온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지난 11월 교통사고로 작고한 고 김영철 이장의 10여년간의 헌신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동안 구룡령 권역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고 김영철 이장은 농사철에는 이웃주민들이 자청해 농사일을 대신해 줄 정도로 마을

사업에 열정을 다해 왔으며, 마을과 개울 건너 벽실을 연결하는 교량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를 방문해 담당자를 설득해 예산을 반영한 사례는 유명하다.

특히 처음으로 추진한 마을 사업을 통해 수륙양용 차량인 아르고와 ATV차량을 구입해 울창한 임도 길을 체험하도록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인기를 끌었으며, 이를 계기로 여름 축제를 개최, 물고기 체험, 활쏘기 체험 뗏목타기, 돌담쌓기 행사를 추진해 연간 4만여 명의 체험객이 방문하는 마을로 성장시켰다.

또 체험객의 방문을 주민의 고정적인 소득과 연결하기 위해 야영장 및 식당과 펜션을 신축해 운영하는 한편 마을공동 표고재배사를 운영하고, 지역의 산림자원인 송이, 능이를 이용한 너비아니를 시판하면서 부촌의 꿈도 이뤄가고 있다.

해담마을은 그동안 강원도의 새농어촌 우수마을을 비롯해 9개의 사업에 선정돼 27억여원의 상사업비를 투입해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체험시설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삼성네트웍스를 비롯한 기업들과의 자매결연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국내외 대표적인 여름형 체험마을로 부상했다.

해담마을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마을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색깔 있는 농산촌분야에 선정, 시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이상욱 해담마을 대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마을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촌마을을 이뤄내 고 김영철 이장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광테마 각광

### 7개 마을 7만7,000명 방문...5억원 소득 올려

우리군이 지난 2005년부터 강현면 석교리를 시작으로 올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현북면 명지리까지 마을당 2억원씩 7개 마을에 1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매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서면 공수전리, 황이리, 갈천리, 현북면 원일전리, 명지리, 현남면 하월천리, 강현면 석교리 등 7개 마을이 선정돼 2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관을 신축해 숙박 시설과 식당 등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판매를 병행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군은 올해 11월까지 마을별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6만8,110명이었던 체험객이 올해는 7만7,10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매출액도 3억 2,300만원에서 4억9,400만원으로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체험객이 방문한 마을은 서면 갈천리로 1만 9,000명이었고, 황이리와 원일전리가 각각 1만8,000명과 1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고, 가장 많이 소득을 올린 마을은 현남면 하월천리로 2억원, 황이리 8,400만원, 갈천리 6,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체험객들의 단순 방문보다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과 농산물 구매 등으로 연계하는 마케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체험객이 증가한 것은 산책로, 쉼터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점점 갖춰지고 있고, 여름 피서철 및 단풍철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명지리 앵두사랑 축제, 갈천리 치레마을 산나물 축제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올해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15개 마을축제에 각각 2~4백만원씩 총 3,700만원을 지원해 마을소득화는 물론 주민간의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해 마을의 정체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 670-2336

# 농·특산물 농가소득과 직결

### 벼감자옥수수 10% 늘어...수도권 판매장 개설

우리군이 최근 지역특산물의 수도권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가공시설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올해 벼 9,317톤, 감자 7,055톤, 찹옥수수 1,272톤, 고구마 456톤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증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높이기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벼는 50%가량이 자가소비와 공공비축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유통업체(하나로 마트 등)와 양양물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를 제외한 감자, 고구마, 콩, 찹옥수수, 잡곡, 맥류 등은 70~80%가량이 유통업체와 직거래 장터 등에서 소규모로

유통되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 기존의 판로에서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공동집하 및 규격 출하 등 소비촉진을 위한 활성화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식품 가공 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작물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 산채단지 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 가구당 실질 소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1억7천만원을 투입해 감자, 표고, 느타리 등 15개 품목에 대해 소포장재 10만여매를 구입·지원했으며, 관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고자 하는 6개 업체에 대해 5억 6,100만원을 투입해 가공공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농·특산물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올해

16회에 걸쳐 수도권 판매행사 및 푸드박람회 등에 참가, 1억 7,9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양양물을 통해서도 지난해보다 15%가량 증가한 5억 4,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군은 올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57개 사업에 총 42억 7,100만원을 투입해 저온저장고와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선진농법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의 유망과수인 동철감은 지난 2000년부터 보급사업을 추진해 713농가 265ha에 12만 3천주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7천주를 추가로 보급한 가운데 향후 200여톤에 대해 가공시설을 지원, 10a당 270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쇼핑몰 구매자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시기별 맞춤형 이벤트를 실시해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동시에 수도권에 상설 판매장 개설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 670-2701

# 겨울방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양양교육도서관, 오는 31일까지

양양교육도서관(관장 전인회)은 오는 31일까지 '겨울방학!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를 주제로 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참가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강좌별 10명~15명이며, 오는 31일까지 14일간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며, 재료비(교재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 우리군 신규직 14명 실무수습 배치



우리군은 지난 2일 신규 공무원 14명에게 실무수습 임용장을 수여하고 각 부서별로 배치했다. 이들은 실무수습을

마친 뒤 내년 2월 강원도의 신규교육 4주 과정을 이수하면 정식 공무원으로 발령받게 된다.

# 사랑의 연탄 3만장 기탁 미담

재경양양군민회, 지역발전 구슬땀



재경양양군민회(회장 김천수)가 지난 23일 오전 11시 군청광장에서 회원들이 연말을 맞아 모금한 사랑의 연탄 3만장 지원을 위한 모금액을 양양군수에게 기탁했다.

재경회원들은 지난 12월초부터 '고향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1,30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지난 20일까지 200여명으로부터 1,559만원을 모금, 이날 회장단 등 15명이 방문한 가운데 연탄 3만장을 자원봉사센터 연탄은행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재경회원들은 양양읍 내곡리(최만규)와 서면 장승리(김삼봉), 현남면 남애리(이상봉) 3가구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연탄 각 200장씩 600장을 직접 전달하고 위로했다.

재경양양군민회는 지난 2011년 7월 전임인 이두순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조직이 활성화되고 자체적인 단합은 물론 지역과의 활발한 연계사업을 펼쳐 역대 가장 활성화된 군민회라는 평

가를 받아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12월 해오름포럼(회장 오강현)을 결성해 분기별로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 출향인과 수도권 대학에 재학중인 지역 학생을 1대1 결연을 통해 후원하는 멘토-멘티제 운영 등 그동안 지역과의 끈끈한 유대사업을 펼쳐왔다.

아울러 양양물과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통해 출향인들의 판매를 독려해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여름 피서철을 대비해 수도권 지역에서 펼쳐지는 양양 알리기 행사도 군 직원들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2회째 진행했다.

또 이두순 회장의 양양중고교 도서관 기증을 비롯해 사이클 버스 구입 지원, 도서 및 기자재 지원, 향토인재 장학회 설립 등 지역학생들의 후원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송천리 떡마을 방문객 크게 증가

올해 3만2,642명 찾아...연매출 10억 이상

우리군의 대표적인 체험마을인 서면 송천 떡마을이 올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체험 시설을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보다 마을 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천 떡마을은 지난 2004년 마을 내 떡집운영을 위해 정보화 마을 기반을 조성하면서부터 이를 토대로 안정행정부의 아름마을사업과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일련의 사업들을 차례로 유치, 국내 떡체험의 대표적인 농촌마을로 부상했다.

현재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난 2009년 영농조합법인 결성을 통해 떡과 특산물 판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현재 마을 소득의 79%는 떡 판매를 통해 얻고 있으며, 농특산물 14%, 기타 체험으로 7%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모든 수익의 1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14억원을 투입해 마을 이

미지를 구축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야외에서 진행하던 떡체험을 위해 체험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사업의 적극성과 경영마인드를 고취했다.

특히 송천 떡마을은 '떡 하나 주면 안 잡 아먹지' 전래동화 헛님·달님 이야기의 근원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떡마을~광령고개 구간(370m)을 정비하고, 포토존 및 호랑이 조형물 설치, 향토포장(100m)을 실시하는 등 주변을 이야기 테마길로 정비해 특색있는 스토리 체험과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의 삼림욕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군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모두 마무리 된 올해의 경우 마을 방문객이 32,642명을 기록, 지난 2011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평균소득도 1,565만원(2011년, 월조사)에서 1,746만원으로 증가했다.

#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 안내

체납보험료를 2014. 2. 10일까지 완납하시면 급여제한 기간 중에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을 이용하면 체납보험료 외에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간 : 2013. 11. 22 ~ 2014. 2. 10
- ◆ 위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 전액이 환수 대상이나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시면 정당한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2014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2014년도 징병검사 대상자(1995년생)는 아래와 같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하여 검사(4시간정도 소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선택대상

- ☞ 1995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 강원영동병무지청 징병검사장 운영 기간 : '14. 4. 21. ~ 5. 21.
- ☞ 1995년생인 학생, 학원생, 직장인으로 학교, 학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중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 다만, 징병검사 기간이 짧은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

광주·전남 ⇄ 전북, 대전·충남 ⇄ 충북, 경남 ⇄ 부산, 강원도 ⇄ 경기북부

### ▶ 선택방법

-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방문하여 접수 가능

### ▶ 선택시기

- ☞ 2013.12.16.(월) 09:00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 ☞ 강원영동병무지청(강릉) 검사대상자는 '14. 3. 20.까지 선택
- ※ 신청하지 않으면 3월 말경 4월~5월중 하루를 정해 강원영동(강릉)으로 통지함

#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 안내

경제적인 부담으로 디지털방송 시청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에 저렴한 DTV 보급 및 요금제 도입을 실시 합니다.



### 보급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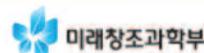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
  - 자활근로자, 의료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 받는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국가유공자 중 일부(수신료 면제대상), 시청각장애인

### 보급 상품

- 아날로그 TV만 보유한 가구는 저소득층 전용 DTV 보급
- 다양한 디지털방송 매체 선택 지원 (택1)
  - ① 지상파 직접수신시 안테나 설치 무상지원
  - ② 케이블TV 클리어람 전용 상품 및 요금감면
  - ③ IPTV 요금감면
  - ④ 위성방송 요금감면
- ※ 자세한 내용은 지원센터(02-737-2763)으로 연락주세요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전화접수 지원센터 02-737-2763
- 신청기간 : '13. 12. 2 ~ '14. 12. 20



## ‘희망2014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를 가슴에 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양양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내유일의 법정모금기관으로서 2012년 동안 양양군민께서 기탁하신 1억2천만원을 포함, 총 87억원을 모금하여 그 중 2억2천만원을 양양군의 사회복지 시설생활인 및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군민여러분을 대신하여 소중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 양양군 모금 및 배분현황 -

구분	모금액	배분액
2013년	45,543,040원	134,065,597원

※ 2013년 9월말 현재

아울러,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14 나눔캠페인』을 전개하오니 양양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관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간 : 2013년 11월 20일 ~ 2014년 1월 31일(73일)
- 모금참여 방법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방송국 총무부, 양양군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ARS 060-700-0577(1통화당 2천원 적립)
  - 양양군 순회(기부)모금
    - ▶ 일 시 : 2013. 12. 19(목) 10 : 00 ~ 14 : 00
    - ▶ 장 소 : 양양재래시장입구
  - 금융기관 사랑의계좌 (수수료면제)

농협 203-01-448497	국민은행 301-01-0614-463
신한은행 100-013-455552	우리은행 027-156845-01-101
우체국 200022-01-003311	예금주 : 강원도공동모금회

- 세제혜택 : 소득세법 34조2항, 법인세법 제24조2항에 의거 전액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전화 244-1662.팩스 244-1688.http://gw.chest.or.kr
  -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 670-2264, 2293.팩스 670-2790

## 동절기 상수도 관리 이렇게 하세요!

수도계량기는 보호함 내부에 보온재 충전하여 밀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출입문과 통로창문 차단하여 찬공기 차단 한파기간 수도관 동파예상시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두기

- 동파 발생원인
  - 계량기 보호통 내부로 찬공기가 유입할 경우
  -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수도관로내 정체되어 있을 경우
- 상수도 관리요령
  - 수도계량기는 헨웃, 스티로폼 등 각종 보온재를 사용하여 찬공기 차단
  - 계량기 보호함 외부는 틈새가 없도록 보호함 덮개 파손 등 관리 철저
  - 겨울철에는 주택 외부 수도전을 보온조치 및 밀폐하여 동파사고 예방
  - 마당 및 화장실 등의 노출된 수도관을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조치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출입문과 통로창문을 닫아 찬공기 차단
  - 산간, 계곡 등 도심외각 지역에서는 수도꼭지를 조금틀어 수돗물이 계속 흐르도록 조치
- 수도시설 동결, 동파시 조치요령
  - 수도시설이 얼었을 경우 헤어드라이기 또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서서히 녹입니다.
  - ※ 동결된 곳에 불을 피우거나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계량기가 파손됩니다.
  - 계량기 동파시 양양군상수도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시교체가 가능합니다.

### 【계량기 등 수도시설 동파발생시 연락처】

▶ 양양군 상수도사업소 ☎ 033-670-2691, 2692

### 양양군 상수도사업소

## 현대차미소금융재단 무담보·무보증대출

- 대 상 : 차상위계층사업자 또는 신용등급 7등급이하 사업자
- 지원금리 : 연 2% ~ 4.5%
- 지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사업장임차보증금
- 지원한도 : 운영자금 2,000만원이내
- 상담장소 : 속초시근로복지관 2층 (재단 속초지점)
- 상담전화 : 033-633-2910 ~ 2911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속초지점

## 양양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희망자 모집!!

- 신청기간 : 2014. 1. 2 ~ 1. 17 (16일간)
- 신청대상 : 양양군 거주 2년이상인 가정
  - 기지원 가정일 경우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난 가정(타기관지원 포함)
- 지원인원 : 5세대 20명
- 신청방법 :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부서(여성회관)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외국인(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 지원내역 :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
- 선정방법 : 선정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 선정기준: 양양거주기간, 생활정도, 방문사유, 기지원 수혜여부, '13년 양양군지원프로그램 참가여부 등
- 대상자 선정 통보 : 추후 개별 통보
- 사업추진 : 2014. 2월부터 실시
- 문의사항 :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부서 ☎ 670-2778
  - ※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사업은 양양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 시행됩니다.

## 미래농업대학과정 안내

- 과정개요
  - 과 정 명 : 미래농업대학과정
  - 모집인원 : 30명
  - 교육기간 : 6개월(2014. 4. 1 ~ 9. 26) / 합숙
  - 전형방법 : 시장·군수 추천
  - 지원자격 : 도내 거주 19세 이상 50세이하(남·여)
    - 영농정책 의욕이 높고 미래농업 선도자의 자질을 갖춘자로서 단체생활에 결격사유가 없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자
- 교육생 선발
  - 추천기간 : 2014. 1. 2 ~ 2. 28
  - 구비서류 : 시장·군수 추천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 합격지발표 : 2014. 3. 14(금)
    - ※ 개별통지 및 미래농업교육원 홈페이지게시(www.ares.gangwon.kr/atc)
- 주요 교육내용
  - 농산·원에·특작 : 재배기술, 소득작목개발, 수확후 관리 등
  - 가공·유통·수출 : 농산물 안전성관리, 마케팅전략, 수출농업 등
  - 농촌관광 : 개발유형, 시설배치, 고객관리 등
  - 축산경영 : 축종별 사양기술, 조사료생산, 인공수정 등
  - 농업정보화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디지털 카메라 활용법, PPT 활용능력 등
  - 농기계·농용장비 : 농기계운전, 굴삭기, 지게차 등
  - 일반교양 : 농업인이 알아야할 세금, 법률, 리더쉽, 전통문화 등
  - 기 타 : 선진 영농법인 현장실습, 해외연수 등
- 교육생 특전
  - 교육비 전액 도비지원(수강료, 숙식비, 주말 왕복교통비 등)
  - 선진농업국 해외연수(10일 이내)
  - 농업기계 등 각종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 농어촌진흥기금,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등 정책자금 우선지원

## 건강하게 겨울나는 방법

가을철 한껏 빛을 받던 단풍이 떨어진 거리에는 벌써부터 캐롤송이 울려 퍼지면 서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왔음을 알린다. 사계절 중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에서 발달하는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또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에 신경 써야한다.

겨울철 난방이 잘되는 실내에는 습도가 더욱 낮아져서 피부 건조증에 시달리기 쉽고 호흡기와 기관지 점막이 마르게 되면서 방어능력이 떨어지게 돼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 전파가 더욱 용이해 실내 환기를 자주하고 가습기와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실내습도를 조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한파나 실내와 바깥온도의 온도차가 심할 때 체온유지를 위해서 몸에 흐르는 피가 심장에 쏠리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된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졸중이나

근육 섬유 파열 등 신체이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 겨울철 외출 전에는 반드시 적당한 준비운동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외출할 때는 모자와 장갑 등을 착용하고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해야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리고 몸에서 열이 나가는 것을 막게 한다. 하지만 움츠리는 것보다 가슴을 활짝 편 채 활동하면 인체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져서 결국 많은 열이 생산되어 짧은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운동 못지않게 고단백질,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과 계절과일을 잘 챙겨먹는 것도 건강한 겨울나기의 한 방법이 되겠다. 또한 일상생활 및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속초시상대장 이광주